연구 주제	시멘트의 탄산화양생 효율 증진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의 온실가스는 지표면에서 복사된 에너지를 재흡수하고 다시 지표면에 복사하며 온실효과를 일으킨다. 산업혁명 이후 증가한 온실가스 는 과도한 온실효과로 기후 위기를 불러일으키며 현재 인류에게 최악의 사회 문제로 다가왔다. 그 중 시멘트 산업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6.8%란 막대한 비중을 가진다. 하지만 동시에 시멘트는 이산화탄소와 반응하 며 탄산칼슘을 생성하는 탄소화 반응을 한다. 이 반응을 촉진하면 시멘트가 많 이 사용되는 만큼, 시멘트에 의한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동아리는 시멘트 제작 초기에 적절한 조건에서 고농도의 이산화탄 소와 반응시켜 시멘트에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저장하도록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시멘트 물과 반응하여 굳는 물질로 건물의 벽을 짓는데 사용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축자재이다. 석회석을 주원료로 하여 점토 등 부원료와 1500도 고온에서 구우면 클링커란 시멘트의 전구물질이 형성된다. 클링커를 가루 형태로 분쇄하고 석고와 혼합하면 시멘트가 된다. 이 가공과정 중 석회 성분이 산화칼슘으로 분해되며 CO2가 방출되는 것이 시멘트 산업 중 주 배출원인이다. CaCO3(s) → CaO(s) + CO2(s) -탄산화 양생(탄산칼슘 침전반응) 시멘트 내 성분인 수산화칼슘은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탄산칼슘과 물을 생성한다. 이 반응에서는 이산화탄소가 포집되며 시멘트 제조 중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여 배출량이 낮춰질 수 있다. 또한 생성된 탄산칼슘은 시멘트 내부 구조를 치밀하게 하여 경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Ca(OH)₂(s→aq)+CO₂(g→aq) →CaCO₃(aq→s)+H₂O(aq) 이는 불가역반응이며 세공용액 중 알칼리 금속 이온 농도와 수산화 이온 사이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수산화칼슘이 분해되는 것이다. 이 반응이 진행될수

1. 가루 형태의 시멘트를 준비한다. 2. 일정 부피의 밀폐된 용기에서 건조시킨 시멘트 가루의 무게를 칭량해 증류 수에 넣는다. 3. 용기의 온도, 습도 조건을 일정하게 맞춘다. 4. 밀폐된 용기 안에서 일정한 양의 드라이아이스를 승화시켜 이용해 원하는 이산화탄소 농도 환경을 조성한다. 5. 고농도 이산화탄소 환경에서 시멘트 가루가 섞인 세공 용액을 2시간 동안 방치한다. 실험 내용 6. 포집후 세공용액을 드라이 오븐에서 건조시키고 시멘트 가루를 분리해낸 후 시멘트 무게를 칭량해 시멘트 가루의 질량 변화를 측정해 탄소가 얼마나 포집 되었는지 계산한다. 7. SEM으로 시멘트 가루의 형태를 관찰해 탄산칼슘의 형성 여부를 관찰한다. 8. 세공 용액의 pH를 3, 6, 9, 12로 맞춘 후 각 세공 용액에서 위와 같은 조 건으로 시멘트와 섞고 이산화탄소와 반응시킨다. 9. 각 실험군의 탄소 포집 정도와 탄산칼슘 형성 정도를 서로 비교한다. 10. 압축 강도 시험기를 이용해 대조군과 각 실험군에서 형성된 시멘트의 강 도를 측정해 성능을 비교한다. 4월- 정보 수집 및 동아리 부원 간 아이디어 공유 5월- 가설 및 실험 설계, 실험 재료 구입 연구 계획 6월- 실험 수행 및 데이터 분석, 1차 결론 도출 7월- 1차 실험 내용을 고려하여 2차 실험 가설·계획 수립 및 수행 8월- 2차 결론 도출 및 내용 정리 시멘트 제작 단계부터 탄소 포집 과정을 거치게 해 모든 시멘트들이 배출하 예상 결과 게 되는 알짜 이산화탄소량이 줄게 된다. 적용을 확대하면 시멘트 산업 자체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퍼센트량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포집과 및 기대 효과 정에서 형성된 탄산칼슘은 시멘트의 경도를 증가시키며 그 성능을 좋게 해 시 멘트의 수명을 증가되며 재건축 등에 필요한 시멘트양이 줄 것이다. A Study on the Cementitious Materials as Carbon Capture Materials-Micro-Structure Change by Carbonation Curing (문은진, 김상 참고 문헌 준, 박홍기, 최영철, 2018) 시멘트계 재료의 탄산화 양생을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활용 및 격리 (장정국,

김광목, 박솔뫼, 이행기, 2016)